

木造塔婆의 研究

朱 南 哲

一、序 論

塔婆建築의 『塔婆』라는 말은 본래 梵語 stupa에서 연유되었고, 이 建築物은 佛身骨을 봉안하는 墓所로서 진립되었던 만큼, 佛敎가 이 땅에 전래되고, 佛敎建築이 造營되기 시작하였던 初期의 寺刹 建築에 있어서 는 그 어떤 建築物보다도 重要な 位置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寺刹 建築에 있어 佛像을 봉안하는 佛殿인 金堂에 더한층 莊嚴이 가해져 감으로써, 점차 塔婆의 重要性이 그 빛을 잃어 갔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 寺刹 建築 全體를 살펴 볼 때, 비록 예배의 重心空間이 金堂으로 옮겨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塔婆가 가지는 상징성과 이것이 金堂前面에 자리잡고, 그의 중심위치는 金堂의 중심위치와 더불어 伽藍空間 全體의 配置類型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塔婆 建築에 있어, 韓國 初期의 塔婆는 그 始源을 中國의 樓閣形式의 多層塔에 두고, 木造塔으로 비롯되어 石造塔婆、磚築塔婆(塼塔)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발전 되어 갔던 것이다.

따라서 韓國의 木造塔婆는 韓國塔婆의 시원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比重은 자못 큰바 있으며, 더우기 佛敎가 한층더 진흥된 統一新羅時代의 木造塔婆研究는 큰 의의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周知하는 바와같이 統一新羅時代의 木造塔婆는 하나도 전하여 오는 바가 없고, 다만 木塔이 造成되었던 두 세 개 寺刹에 대한 기록과 그 寺刹가 전할뿐인데, 이에 대한 본격적인 調查發掘은 아직까지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一九二〇년대 藤島治郎博士가 조사하여 發表^①한 것과 一九六九年부터 一九七一年까지 三차에 걸쳐 望德寺址를 조사한 것이 그 全部이나, 이 조사는 단순히 地表調査에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精確성을 가졌는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이처럼 아직 國家에서 이렇다할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현실점에서 統一新羅時代의 木造塔婆를 研究함에 있어서는 위의 地表調査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겠다.

한편 統一新羅時代의 木造塔婆를 研究하는 方法으로는 이時代의 木造塔婆는 三國時代에 建立되어 統一新羅時代까지 전하여 온 三國時代의 木造塔婆가 규범이 될것임으로 이미 이기간에 대하여 研究發表^②한 鄭永鎬博士의 三國時代의 佛敎建築과 또 三國時代의 建築全盤을 연구한 金正基博士의 『三國時代의 木造建築』^③ 그리고 월선 이전에 발표된 高裕燮先生의 『韓國塔婆의 研究』^④를 기본 자료로 삼아야 할것이다.

이제 統一新羅時代의 木造塔婆를 考察하기전에 三國時代의 木造塔婆를 간결하게 돌이켜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高句麗의 木塔으로서는 淸岩里寺址의 八角木造塔이 뚜렷한 基壇址를 남겼으며, 百濟의 木塔으로서는 軍守里廢寺址와 金剛寺址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었다.

특히 現存하는 最古石塔인 益山彌勒寺址 西石塔에서는 이의 규범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百濟의 木造塔婆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 統一新羅時代의 木塔研究에도 큰 밑받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統一新羅木造塔이 계승의 원천이 된 新羅의 木塔인 皇龍寺의 九層木造塔婆는 그 유적지에 대해 최근 본격적인 發掘調査를 함으로써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들 자료들과 三國時代의 建築關係의 資料를

(古墳壁畫瓦堂, 博 등)에 의하여 추정된 當時의 木造塔婆 木造架構式建築으로 柱上에는 柱頭를 얹고, 이위에 檐遮와 小果들로 栱包를 짜서 柱上마다 올려놓은 包作係의 建築이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상 간략하게 언급된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本研究의 진행방법상 본론 統一新羅時代의 木造塔婆를 復元하는 과정에서 논술하고자 한다.

二、史的背景과 遺蹟現況

統一新羅時代에 들어서면, 佛敎는 한층 더 융성하여지고, 여기저기 많은 寺刹들이 初創된다. 이들 중 대표적인 것들만 골라 보면, 浮石寺(文武王 一六, 六七六), 梵魚寺(文武王 一八, 六七八), 四天王寺(文武王 一九, 六七九), 感恩寺(神文王 二, 六八二), 望德寺(神文王 五, 六八五), 甘山寺(聖德王 一八, 七一九), 佛國寺(景德王 一〇, 七五一), 華嚴寺(景德王 一三, 七五四)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많은 寺刹에 있어 木造塔婆가 建築되었던 寺刹로는 四天王寺 望德寺 등 불과 二~三개에 불과하다. 이들이 建立된 寺刹의 두드러진 변화로는 三國時代의 一塔伽藍에서 雙塔式伽藍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과 木塔에 비해 石造塔婆가 數的으로 대폭 증가되었다는 사실이다.

1、四天王寺의 木塔

雙塔式伽藍으로 제일 처음 건립된 四天王寺는 慶州 狼山の 남쪽 神遊林의 터에 세워졌다. (現慶州市排盤洞)

이 寺刹은 三國史記 新羅本記 第七文武王下, 十九年條에 『四天王寺成』이라 하였으니, 統一新羅 初期인 西紀 六七九년에 건립된 것을 알 수 있다.

四天王寺에 대한 기록으로는 위의 것 외에 三國遺事에 다음과 같은 비교적 자세한 것이 있다.

三國遺事 卷二 紀異 第二 文虎王法敏條(文虎王은 文武王을 이름)에

『上元元年甲戌二月 劉仁軌爲雞林道摠管以伐新羅而鄉古記云 唐遺陸路將軍孔恭水路將軍有相 王覺之發兵之明年 高宗使召仁問等讓之曰 爾請我兵以滅麗 害之何耶 乃下圓扉 鍊兵五十萬 以薛邦爲師 欲伐新羅 時義相師西學入唐 來見仁問 仁問以事諭之 相乃東還上聞 王甚憚之 會群臣問防禦策 角千金天尊奏曰 近有明朗法師入龍宮 傳秘法而來 請詔問之 朗奏曰 狼山之南有神遊林 創四天王寺於其地 開設道場則可矣 時有貞州使走報曰 唐兵無數至我境 廻槩海上 王召明朗曰 事已逼至 如何 朗曰 以彩帛假構宜矣 乃以彩帛營寺 草構五方神像 以瑜珈明僧十二員 明朗爲上首 作文豆妻秘密之法 時唐羅兵未交接 風濤怒起 唐舡皆沒於水 後改舡寺名 四天王寺 至今不墜壇席 國史 大改舡在調露元年己卯…… (방점은 필자)이라 하였으니, 四天王寺의 창건은 唐軍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며, 처음에는 彩帛으로 정을 假構하였다가, 調露元年 서기 六七九年 文武王 一九년에 다시 정을 제대로 짓고 이름을 四天王寺라 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三國遺事 卷第四 義解第五 良志使錫條에 『……又善筆札 靈廟丈六三尊, 天王像, 拜殿塔之瓦 天王寺塔下部八部神將 法林寺主三尊 左右金剛神等…… (방점은 필자)이라 하였으니, 여기에서 『釋良志가 四天王寺塔 밑의 八部神將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보아, 木造塔을 造成하고 그 속에 八部神將을 안치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四天王寺址의 東塔址와 西塔址로 보아 東西 兩塔에 나누어 안치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四天王寺에 대한 기록은 이외에도 몇가지 있으나(高麗史 太祖十九年條等) 寺刹 특히 木造塔의 고찰에 대하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四天王寺址와 東西兩塔에 대한 조사는 藤島亥治郎의 朝鮮建築史論(其一)에서 비교적 상세히 알 수 있다.

藤島亥治郎博士가 조사연구하여 작성한 復原圖(그림 一)에 의하면, 中心軸上 中央에 金堂을 두고, 그 전면 左右에 東西兩木造塔을 그리고 中心軸上 제일 남쪽에 中門, 제일 북쪽에 講堂을 두고, 長方形으로 廻廊을 쌓아 둘러 막고 있다. 이러한 一金堂二塔式伽藍에 있어 藤島亥治郎博士가 調査한 當時의 木塔址現況은 다음과 같다.

① 東塔址

위치는 金堂址 東南方으로, 金堂의 中心軸上 七九, 二尺 되는 곳에 있으며, 높이 약 五尺되는 方形土壇 위에서 七개의 柱礎石과 一개의 心礎石, 그리고 이들 북쪽에 산재된 三개의 礎石들을 발견하였다.

또 東塔址의 中央에 있는 心礎石 주위로 四개의 四天主礎石들이 둘러 있었다. (그림二, 三)

이들 礎石의 모양은 가장자리것은 花崗岩으로 한편 二尺정도, 높이 一尺정도 되는 方形 쇠시리가 있는 方形礎石이었고, 心礎石은 三, 八尺×三, 八五尺, 높이 三寸의 方形礎石으로 中央에 九, 九五寸과 九, 九寸의 二段으로 方形舍利구멍(깊이 一尺)을 두고 있다.

藤島亥治郎博士의 調査와 今般 本人이 조사한 현황과의 사이에는 별로 큰 차이점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東塔址 북쪽으로 장대석의 일부가 노출되어 이것이 東塔基壇의 가장자리를 마무리한 地臺石이었음을 알 수 있었음이 하나의 수확이었다고 할 수 있다.

② 西塔址

東塔址의 西方中心軸上 一三六, 〇一尺, 金堂中心軸 南方 七八, 七尺 되는 곳에 있으며, 높이 약 四尺되는 土壇은 주위가 허물어져 있었고, 모두 一三개의 礎石, 心礎石과 心礎石 주위의 四天主礎石 四개들이 발견되었다. 이들 초석들의 모양은 東塔址의 것들과 같은 모양이었다.

다만 주위 초석들의 크기가 한번 三尺二, 三五尺이었고 心礎石은 三, 八九×八, 九, 中央의 舍利孔은 九, 九寸×九, 七五寸이었다.

또 토단 동남쪽에 二개의 장대석이 있는바, 가늘고 긴 것은 四, 二六尺마다 六, 四寸×六, 四六寸 크기의 홈이 있었고, 크고 짧은 것은 부잡하게 가공되어 있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은 금번 본인의 조사에서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

타났었다.

2、望德寺의 木塔

望德寺는 四天王寺址의 南쪽으로 현 慶州市 排盤洞에 자리잡고 있었다.

이 寺刹에 대한 기록으로 三國史記 卷第八 神文王 五年春條에 『夏四月 望德寺成』이라 하였으니, 이는 四天王寺가 낙성된지 六년만인 서기 六八五年에 완공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寺刹의 建立동기는 四天王寺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즉 三國遺事 卷二 紀異 第二 文虎王法敏條의 四天王寺에 관한 기록 다음으로 『後年辛未 唐遺趙憲爲師 亦以五萬兵來征 又作其法 舡沒如前 是時翰林郎朴文俊 隨仁問在獄中 高宗召文俊曰 汝國有何密法 再發大兵無生還者 文俊奏曰 陪臣等來於上國一十餘年 不知本國事 但遙聞一事爾 厚荷上國之恩 一統三國 欲報之德 新狎天王寺於狼山之南 祝皇壽萬年 長開法席而已 高宗聞之大悅 乃遣禮部侍郎樂鵬龜 使於羅 審其寺 王先聞唐使將至 不宜見茲寺 乃別勅新寺於其南 待之 使至曰 必先行香於皇帝祝壽之所 天王寺 乃引見新寺 其使立於門前曰 不是四天王寺 乃望德遙山之等 終不入國人以金一千兩贈之 其使乃還奏曰 新羅荆天王寺 祝皇壽於新寺而已 因唐使之言 因名望德寺』(방점은 필자)이라 기록 하였으니, 唐使臣에게 四天王寺를 보이지 않기 위해 四天王寺의 남쪽에 새사찰을 짓고, 사신을 그리로 인도 하였으며, 그리고 唐使臣의 말에 따라 『望德寺』라 이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건립동기에 대한 기록 외에도 三國史記 新羅本記 第九 景德王 一四年條에 『望德寺塔動(唐令狐澄新羅國記曰 其國爲唐立此寺 故以爲名 兩塔相對高十三層 忽震動開合 如欲傾倒者數日 其年祿山亂 疑其應也)』(방점은 필자)이라 하였고, 또 三國史記 新羅本記 第十 元聖王十四年 春三月條에 『宮南樓橋災 望德寺二塔相擊』, 또 同書 憲德王 八年條에 『夏六月 望德寺二塔相戰』이라 하였으며, 三國遺事 卷第五 眞身受供條에

는 『後景德王十四年 望德寺塔戰動 是年有安史之亂』(방점은 필자)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 기록들은 國家에 좋지 못한 일들이 있었을때면塔에 이상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후 지진에 의해 흔들린것을 말한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望德寺址의 調査는 四天王寺址와 마찬가지로 藤島亥治郎博士가 一九二八年에 실시한바 있고, 최근 一九六九年부터 一九七一年까지 三차례 걸쳐 文化財管理局이 시행한바 있으나, 아직 그 보고서가 발행된바 없지는 실정이다.

藤島亥治郎博士의 調査에 의하면 寺址의 臺地는 북쪽에 있는 國道와 같은 높이이고 남쪽으로는 약 一〇尺 정도의 斷崖가 있는 低地臺와 南川과 닿아 있었다. 그리고 臺地의 中央南部에 金堂址와 金堂址의 東南과 西南에 東塔址와 西塔址가 있다. 그리고 金堂 南쪽 斷崖가 가까이 中門址로 추정되어 대략 四天王寺와 同一한 伽藍制度를 이루었다고 생각되나 규모는 적은듯 하다. (그림九)

① 東塔址

金堂址의 東南에 높이 약 四尺되는 方形으로 보이는 土壇이 있고, 여기에 東塔址의 礎石들이 있었다.

이의 中心距離는 金堂址의 南쪽 礎石으로부터 六九尺、金堂址의 中心軸부터 東쪽으로 五四尺되는 지점에 東塔의 中心이 온다.

壇 위에는 六개의 礎石들이 있고, 이들은 二、一尺×二、一尺 크기의 方形으로 되어 있다.

이들 礎石間의 거리는 다음 表와 같다고 한다.

藤島博士가 조사하였던 이러한 상황은 금번 필자의 답사 때에는 그림과 같이 상당한 부분이 명료하게 地表에 드러나 있었다.

즉 十一개의 일반 礎石과 一개의 心礎石、四개의 四天王柱礎石들이 드러나 있었고 더우기 東西南北 四面에 뚜렷이 階段址가 드러나 있었으

	제 一 주 간	제 二 주 간	제 三 주 간
北側列(東으로부터)	五、四尺	五、三尺	五、四尺
東側列(南으로부터)	五、五尺	五、二尺	五、五尺

며, 南西 모퉁이의 基壇 地臺石이 명료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그림十、十一、十二、十三)

② 西塔址

金堂址의 西南方에 높이 二~三尺되는 흙더미가 있는데, 이것이 西塔址의 기반자리임이 분명하다. 이의 중심거리는 금당으로부터 六九尺、金堂의 中心軸부터 五四尺이다.

木塔의 心礎石은 비교적 커다란 八角形礎石으로 그림과 같은 실측치를 이루고 있다. 중앙에는 二단의 方形구멍을 내었는데 상단은 一、〇一尺、깊이는 三寸、하단은 깊이가 八寸으로 舍利를 안치했던것으로 생각된다.

금번 답사때에도 東塔址와 같은 뚜렷한 基壇과 基壇階石、基壇石들은 발견할수 없었고, 단지 발가운데 비교적 높디랴게 쌓여진 土壇과 그 中央에 자리잡은 八角形心礎石으로서만이 西塔址임을 알수 있는 실정이었다. (그림 十四、十五)

3、普門寺의 木塔

본래 普門寺라는 寺刹에 대하여는 기록이 발견된바 없어 그의 초창년대나 건립동기는 물론 寺名에 대하여도 확실한 것을 알수 없었다.

다만 이 寺址에서 一九一六年에 『普門寺』라 銘文이 있는 기와가 발견된 관계로 이 寺址가 普門寺址임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간 이 寺址에 대한 본격적인 調査는 없었고 다만 一九二八年 藤島亥治郎博士에 의하여 地表調査가 실시되었으며, 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寺址全體의 모습은 논밭 가운데 곳곳에 구릉모양으로 융기되어 있고 여기에 礎石들이 산재해 있었다.

중앙에 金堂이 자리잡고, 이의 남쪽에 동서로 東西雙木塔이 그리고 金堂북쪽으로 講堂이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廻廊이 있어, 결국 雙塔式 伽藍配置를 이루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① 東塔址

東塔址는 金堂 中心에서 남쪽으로 八〇尺, 또 동쪽으로 八二尺 되는 곳에 한변이 약 三二尺되는 平方形을 이루고 있다.

이의 地表面에는 瓦片들이 산재해 있었고, 礎石 一개가 西北쪽 壇 아래 떨어져 있었다.

② 西塔址

西塔址는 金堂 中心으로부터 남쪽으로 八〇尺, 서쪽으로 八六尺 되는 곳에 그 中心이 놓이고, 여기에 心礎石이 있는 土壇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土壇은 東塔址 보다도 파괴가 심하였고, 크기는 한변이 三五尺 되는 正方形 平面을 이룬듯 하다.

心礎石은 한변이 약 四、四七尺되는 正方形의 臺石위에 직경 四、一一尺 높이 八、三寸 되는 蓮座를 두고, 이의 위에 폭 七、七寸의 띠를 쇠 시리하였으며, 中央에 직경 一、〇三尺 되는 穴을 두었는데, 臺石이나 蓮座가 한돌로 되어 있었다. (그림十六)

4. 기타 寺刹의 木塔

統一新羅時代에 建立된 寺刹의 木塔으로는 위에서 조사 발굴된 三寺의 木塔들 以外에 불과 二個의 事例가 있을 뿐이다.

첫째는 祇林寺의 木塔이다.

이 寺刹은 慶尙北道 月城郡陽北面虎岩里 四一九번지 일대에 자리잡은 寺刹로 三國遺事 卷第二 萬波息笛條에 『王宿感恩寺 十七日 到祇林寺 西溪邊留駕畫簾』이라 하였으니 王이 感恩寺에서 자고, 十七日 祇林寺 서측 냇가에 이르러 수레를 멈추고 점심을 든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祇林寺는 이미 統一新羅期에 있었던 寺刹로서 寺傳에는 善德王十二年(統一紀元前二五年) 光有聖人的 창건이라 함으로 創建歷史가 깊음을 알 수 있다.

藤島亥治郎博士는 事蹟記에 『有三層殿即定光如來舍利閣也』라 기록된 것과 上面이 평탄한 皇龍寺址에서와 같은 礎石과 方形의 쇠시리가 있는 四天柱礎石과 中央에 폭 七寸五分, 깊이 五寸의 二重方穴이 있는 心礎石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三層 木造塔이 있었다고 주장한바 있다⑤.

물론 이 木造塔은 統一新羅時代以前, 寺刹의 初創과 더불어 建立된 것으로 생각됨이 마땅 하겠으나, 이의 平面이 一八尺六寸八分四方으로 柱間거리 六尺二寸三分弱인 正面三間 側面三間으로 四天王寺의 木造塔과 望德寺의 木造塔 중간에 위치함으로 高裕燮先生의 견해와 같이 統一新羅時代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전혀 이름을 알 수 없는 木造塔址가 朴日薰先生에 의하여 조사 발표된바 있다. ⑥

木塔址의 위치는 慶州 狼山 北領西腹에 新羅末期 巨儒 崔孤雲先生의 讀書堂遺墟址가 있는 西麓 三八m 거리인 현 慶州 九黃里四四八番地 일대의 논(水畓)에 있다.

寺刹址는 南向하였고 金堂址로 생각되는 곳은 논이 되어 礎石이 하나도 없으나 기와장들은 널려 있고, 塔址의 남쪽 약 二六m 지점에는 石燈伏蓮臺石 一基가 있다.

木塔址는 높이 약 一m, 한변이 약 一二m 되는 方形 土壇으로 토단 주변에 한변 六二cm 되는 方柱礎石들이 동쪽에 一基, 북쪽에 三基, 서쪽에 四基가 있다.

土壇 中央에서 약간 남쪽에 있는 心礎石은 矩形의 自然石이 南北으로

높여 土面을 약간 부풀게 다듬고, 직경九六cm의 八각형의 한 단(段)을 들게하고 中央에 깊이 五cm 한변 二七cm의 方形孔속에 다시 깊이 二三cm 한변 一七cm의 작은 方形孔을 二重으로 두어 아랫구멍에는 舍利를 안치하였었고, 위에는 木塔의 擦竿柱를 삽입하였음을 알수 있다. (그림十七) 이 木塔址에서 出土되는 瓦埴類가 三國時代에 속하는 토수蓋瓦片과 그리고 이것이 赤色으로 변한것으로 보아 화재를 만난듯 함으로 이 木塔이 統一新羅時代의 것이 아니라 三國時代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統一期の 木造塔婆의 事例가 없는 현재에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된다 하겠다.

三、木造塔의 複元

統一新羅時代에 建立되었던 四天王寺의 東西兩木造塔、望德寺의 東西兩木造塔、普門寺의 東西兩木造塔에 대한 遺蹟址의 조사자료를 통하여 볼때, 이들 木造塔들은 모두 三國時代의 木造塔과 나아가 木造建築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위에서 논하였듯이 이들 寺刹들이 統一新羅初期에 建立되었으며, 따라서 같은 慶州地域에 建立되어 있던 많은 寺刹建築과 특히 皇龍寺 九層木造塔婆의 建築樣式이 규범이 되었음은 너무나도 명백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統一新羅時代의 木造塔의 모습을 복원함에 있어서는 各寺址에서 발견 조사된 자료들과 三國時代 新羅의 木造建築에 대한 자료, 그리고 비록 朝鮮時代에 重創되었으나, 木造塔婆의 모습을 알게 해주는 雙峰寺 三層木造塔(現大雄殿)과 法住寺捌相殿을 참고 함이 마땅한 것이다. (그림 十八)

1、基壇

基壇의 平面形態는 이 위에서는 木造塔의 平面이 正方形임으로 자연

히 正方形 平面을 이룬다고 생각된다.

基壇의 築造樣式은 우선 皇龍寺의 木造塔基壇址에서 보듯이 ① 땅을 깊이 파고, 사담머리 크기의 냇돌을 한벌 깔고 그 위에 赤褐色粘土를 얹게 깔아 다진후 다시 반분(二〇회)하여 쌓은 것이거나, 아니면 같은 皇龍寺의 金堂址에서 처럼 땅을 깊이 파고 赤褐色砂質粘土와 黃褐色砂質粘土를 교대로 다지고 쌓아 올린 版築法을 시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基壇의 마무리에 대하여 考察하면 四天王寺의 西塔址에서 발견된 장대석(四、二六尺 마다 六、四寸×六、四寸 크기의 흙이 있음)(그림八)과 皇龍寺址의 발굴조사에서 나타난 三重基壇의 퇴화된 모습 또는 金正博士의 의견대로의 塔區의 存在나 기타 三國時代의 木造建築의 基壇樣式으로 보아서 우선 架構式基壇의 存在를 추정할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제일 먼저 일정한 간격(四、二六尺마다)으로 앞은 흙(六、四寸×六寸)을 만든 地臺石을 놓고, 이 흙위에 平柱(掌柱)와 隅柱들을 세우고, 이들 石柱들 사이에 板石으로 된 面石들을 끼워 넣는다. 다음 이들 石柱들과 面石위에 다시 長臺石으로 甲石을 만들어 덮어 마무리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望德寺의 木造塔 基壇에서는 그 東塔址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그림十一、十二)과 같은 地臺石(흙이 있음)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現存하는 法住寺의 木造塔인 捌相殿의 基壇에서와 같이 長臺石들만으로 地臺石과 甲石을 만들고 이 사이에 板石으로 石柱없이 面石을 이룬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統一新羅時代의 木造塔基壇에서도 朝鮮時代 널리 쓰여진 딸들쌓기 基壇도 일단 생각할수 있겠으나, 一般的으로 三國時代와 統一新羅時代의 建築에서의 石造物들은 극히 정교하고, 또 위의 事例에서처럼 장대기단석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런 가정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統一新羅時代의 木造塔婆의 基壇은 위에서 논한 첫째양식과 두번째양식이 공존하였다고 생각된다.

다음 基壇의 층수를 추정하여 보면, 비록 皇龍寺의 木造九層塔址에서 金正基博士의 의견대로 三重基壇의 퇴화된 모습, 내지 塔區를 둔 二重基壇이 발굴되었다고 하지만, 四天王寺址나 望德寺址에 있어 塔址의 크기와 이에 따른 木造塔의 규모, 그리고 望德寺址에서와 같이 거의 확실히 되는 單層基壇으로 보아, 양자 공히 單層基壇이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다음 基壇에 오르내리기 위해서는 필히 石階가 건설되었다고 생각되는데, 各塔址에서 四天柱礎石들과 望德寺址에서는 基壇 四邊, 中央에 뚜렷한 계단자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法住寺 捌相殿에서와 같이 基壇 四邊 中央으로 石階를 두었음이 틀림 없는 것이다.

2、礎石

木塔의 礎石은 平柱와 隅柱의 一般礎石과 中央의 刹柱가 놓이는 心礎石, 그리고 心礎石 주위의 四天柱礎石들로 구분된다.

다행히 統一新羅時代의 木塔址들에서 礎石들만은 現存 實物들로 발굴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측 고찰은 불필요하다.

各寺址의 木塔址에서 발견된 일반 礎石들을 정리하면 그림十九와 같이 커다란 돌을 다듬어 上面에 높이 一寸정도, 크기 二~三尺의 方形의 평평한 단을 만든 방향초석이다.

이러한 礎石은 이미 統一新羅時代는 물론 그 以前의 三國時代의 各建築址에서도 다수 出土되었기 때문에 木塔의 礎石으로서 일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 刹柱의 礎石인 心礎石은 그림(四、五、六、十四、十五、十六、十七)에서와 같이 各寺刹의 木塔址마다 다르게 方形과 八角形, 그리고 蓮華座가 있는 것 등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러나 中央에 方形내지 원형의 이중 깊이로 된 구멍을 둔 점은 모두 같은바, 이는 아랫 구멍에는 舍利를 장치하고 위의 구멍은 刹柱를 끼워 넣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木塔의 刹柱 礎石인 心礎石만들은 그 木塔을 造形成한 사람이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요소임을 짐작할 수 있다.

끝으로 心礎石 주위의 四天柱礎石들은 모두 方形의 다들은 礎石으로 쇠시리없는 일반 礎石들과 같은 것이었음이 확실한 것이다.

3、平面

木塔의 平面은 모두 方形으로 現段階로서는 礎石間의 거리를 실측하고, 그 復元論을 이미 발표한 藤島博士의 案에 의하여 추정할 수 밖에 없다.

그림(二、三)에서와 같이 四天王寺는 東塔과 西塔 모두 柱間거리 七尺내외되는 정면三간 측면三간의 정방형평면을 이루고 있다.

平面的 中央에는 方形 心礎石이 있고 이 주위 四隅에 四天柱礎石들이 둘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望德寺의 木塔은 東塔址에서 볼 수 있듯이 柱間 거리 五、四尺내외로 정면三간 측면三간의 정방형평면을 이루고 있다.

끝으로 普門寺의 木塔은 土壇의 크기와 東西 兩塔間의 거리, 金堂과 의거리등을 참조하여 추정할 藤島博士의 의견과 위의 두 寺刹의 경우를 생각할 때 이도 정면三간 측면三간의 정방형평면을 이루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木造塔의 平面은 三國時代의 皇龍寺 木塔에서 정면 七간 측면 七간의 정방형평면을 이루고 中央에 心礎石을 두어 刹柱를 세움으로서 構造的으로 安定性을 손쉽게 이루게 되는 『정방형평면』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平面의 上面 마감에 대하여 考察하면 틀림없이 方形搏을 깔았다고 생각된다.

皇龍寺의 木塔址에서도 方形搏들이 깔려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더욱이 四天王寺 西塔址에서 出土된 方形搏 二개는 그림(二〇)에서와 같이 中央에 아름다운 寶相華무늬를 두고 네 귀와 가장자리에 도 무늬를 둘러 장식

한 아름다운 方形塼들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四天王寺의 東塔에도 이러한 무늬 方形塼들을 깔았음은 분명하며, 또 望德寺의 兩木塔이나, 普門寺의 木塔에 있어서도 무늬로 장식된 方形塼을 깔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만약 그렇지 않을 때에는 최소한 無文方形塼만큼은 분명히 깔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4. 기둥

木塔址에서 발굴된 礎石들이 方形礎石이기 때문에 이위에 세운 기둥들 또한 方柱로 추정될 수 있다. 하나 이들 方形礎石의 다듬은 上面에는 方柱礎石으로 쓰이는 礎石에서처럼 方形의 쇠시리가 없는 점과 三國時代부터 두리기둥(圓柱)을 方柱보다 위에 둔 점을 고려할 때 佛寺建築에서 중요한 殿閣인 金堂과 木塔에는 당연히 두리기둥을 썼다고 생각된다.

또 이 木塔의 두리기둥은 배흘림기둥으로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三國時代의 高句麗古墳壁畫에 나타난 木造建築部材들 모습과 新羅末 景文王八年(八六八)에 입적하여 건립하였던 激鑿禪師塔(國寶 五七號)에서의 배흘림두리기둥을 참고로 하고, 또 高麗時代의 柱心包建築인 鳳停寺極樂殿 등의 배흘림 두리기둥들을 볼 때 이러한 가정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된다.

5. 壁體와 窓戶

木造塔의 軸部는 당연히 壁體와 窓戶로 이루어 졌다고 생각된다. 우선 壁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배흘림기둥의 웃몸을 昌枋으로 結構하고, 밑몸을 인방(引枋)으로 결구한다. 기둥과 昌枋引枋 사이에 중깃과 가시새를 일정한 간격으로 짜넣고 다시 설의와 날의로 촘촘히 짜후, 벽흙을 쳐서 벽체를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기둥과 기둥사이 모두에 壁體를 쳤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四天王寺나 望德寺의 木塔들이 모두 정면 三간 측면 三간인 것을 생각할 때, 御間에는 內部에 드러나들수 있도록 두짝문을 두었고, 좌우 퇴간에는 내

부에 빛을 받아 들일수 있도록 삼창을 설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근거로는 統一新羅時代의 많은 石塔의 몸통(軸部)에서 자물쇠와 고리, 국화쇠(例 聖住寺址 三層石塔 보물 四七호) (그림 二)가 있는 두짝의 문짝이라든가, 高達寺址 浮屠(국보 四호)에서 처럼 삼창(그림 二)을 설치한 것 또는 新羅時代의 壁塼에서 御間에는 두짝의 문짝이 퇴간에는 삼창이 있는 것을 들수 있다. (그림 二二)

다음 양측면과 背面 또한 정면과 같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로는 中央에 礎石이 있고, 그 주위에 四天柱礎石이 있는 것으로 보아, 法住寺 捌相殿에서 처럼 刹柱 주위의 四天柱 사이에 壁體를 치고 八部神將 또는 四天王 네분을^⑧ 東西南北 四面에 안치하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普門寺에서는 心礎石에 특별한 장식을 한 것으로 보아 四天柱 사이에 壁體없이 四天王像을 안치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基壇部에서 論한바 있었던 基壇의 石階는 四天王과의 관계에서 생각할 때 자연히 基壇의 東西南北 四面의 御間 位置에 설치 되었다는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릴수 있는 것이다.

다음 統一新羅時代의 木塔들이 多層이라 생각될 때 一層을 제외한 各層의 柱間에는 法住寺 捌相殿 또는 華嚴寺 覺皇殿에서 처럼 窓戶가 설치되어 木塔內部에 빛을 받아 들였으며, 窓戶의 樣式은 삼창이거나 정자삼창이었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木造塔의 最上層에 있어서는 木塔軸部の 높이가 塔全體의 比例上 낮기 때문에 窓戶를 설치 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 木塔의 上層 軸部の 들레에는 實相寺 百丈庵 三層石塔의 二, 三層 塔身에 조각된 난간이나 慶州博物館 소장의 木造樣式의 石塔材^⑨에서 볼수 있듯이 난간이 둘러져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 난간의 모양은 實相寺 百丈庵 三層石塔의 난간모양과 또 이와 비슷한 모습의 雁鴨池出土의 欄干 조각의 모양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二四)

6、拱包

三國時代의 重要한 木造建築樣式은 이미 高句麗古墳壁畫나 기타의 많은 자료들에 의하여 柱上에 柱頭를 놓고 이위에 첨차와 소로를 짜올린 包作係 건축이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삼국시대의 包作係 木造建築은 분명 統一新羅로 제승되었으며 더우기 最近 一三C에 건립되었다고 확신되는 鳳停寺 極樂殿의 建築樣式이 中國 南禪寺大殿과 거의 같고, 이 殿閣이 唐建中三年(A.D. 七八二)에 건조된 것으로 보아 적어도 九C統一新羅時代에 이러한 建築樣式이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따라서 統一新羅時代의 木造塔婆 역시 拱包를 柱上에만 짜올린 柱心 包係의 建築이 분명하였다고 생각된다.

拱包를 考察하면, 우선 柱上에 놓은 柱頭는 慶州 佛國寺 欄干石柱에 造出된 모습과 統一新羅時代의 제작으로 보이는 石造物에 나타난 拱包의 모양으로 또 雁鴨池出土의 木造部材로 보아 柱頭의 굽면은 曲面이고 굽받침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림 二五、二六)

다음 柱頭위에 짜놓은 檐遮는 前述한 石造物과 거의 같은 모습이라 생각되는데 이것은 최근 雁鴨池出土의 木造部材^㉑에 있어 檐遮(그림 二七)의 밑면을 비록 네번 접었지만, 결국에는 石造物에 나타난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분명한 것은 鳳停寺 極樂殿을 위시한 高麗時代의 柱心包建築의 檐遮 밑면에서 보이는 蓮花頭形修飾(雙S字刻)은 없었으며, 이것은 후일에 점차 장식수법으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小累의 모양은 高句麗古墳壁畫나 現存하는 많은 包作係建築에서처럼 같은 건축에서는 항상 柱頭의 모양과 같은 것으로 보아 굳이 前述한 石造物에 나타난 소로나, 안압지 출토의 木材部材를 들지 않고라도 굽면은 曲面이고 굽받침은 없는 모양이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림 二八)

7、지붕(屋蓋)

木塔의 지붕은 처마, 지붕면의 모양, 相輪部 기타 장식적인 것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처마는 홑처마와 겹처마 두가지 모두를 생각할 수 있다.

본래 三國史記 雜志 第二 屋舍條에 『新羅屋舍眞骨…不施飛簷…』이라 하여 聖骨 즉 王宮을 제외한 일반건축에서는 겹처마를 이룰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지만 寺刹은 어느시대를 막론하고 一般住宅과는 달리 宮闕建築과 거의 同格으로 생각해온 많은 실증들을 고려하면, 홑처마는 물론 겹처마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우기 三國時代의 石造物인 澈鑿禪師의 浮屠屋蓋에서 정교하게 서서래와 부련이 조각되어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지붕양식은 이들 木塔址들이 정면 三간 측면 三간의 정방형평면이고 더우기 心礎石이 있는 것으로 보아 네모지붕이라 생각된다.

지붕의 마감은 암기와와 숫기와로 지붕골을 이루고 처마끝에서는 그간 各建築址에서 出土된 많은 瓦堂片들로 보아 무너로 장식된 암막새기와와 숫막새기와로 마무리 하였으며, 네모지붕의 네 추너마루는 숫기와로 차고를 만들고 다시 이위에 암기와를 여러장 올려 적새를 이루고, 마지막 숫기와를 엮어 부고를 만들음으로 추너마루를 형성하였다고 생각된다.

다음 네모지붕의 꼭대기에는 탑두부(塔頭部)가 올려졌음이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寶相寺 三層石塔등을 위시하여 많은 石塔들의 塔頭部를 제외하고도 그림三一에서와 같은 栢栗寺址에서 出土된 石造物^㉒에 나타난 塔頭部의 조각을 보아 확실한 것이다.

따라서 최상층 지붕의 중앙에 露盤을 두고, 이위에 覆鉢 仰花 몇층의 寶輪, 다시 寶蓋, 水烟, 龍車, 寶珠를 올려 놓음으로서 相輪部를 형성하였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다음 相輪部의 寶輪 各層과 各層 屋蓋의 네 사래끝에는 風鐸들을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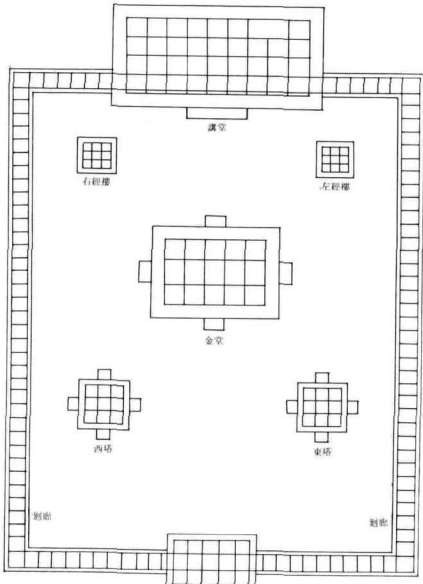


그림 1. 四天王寺의 復元圖
(藤島博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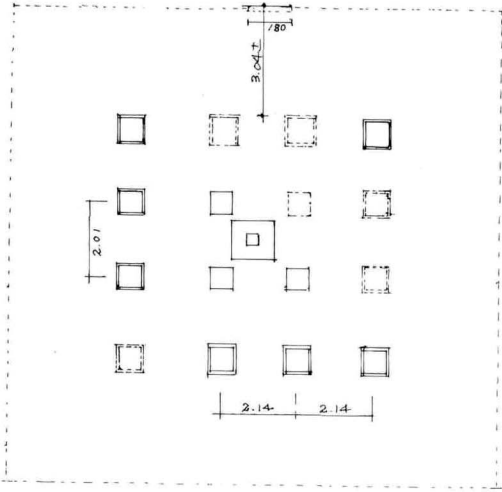


그림 3. 四天王寺址 東塔址 1984. 2. 12. 실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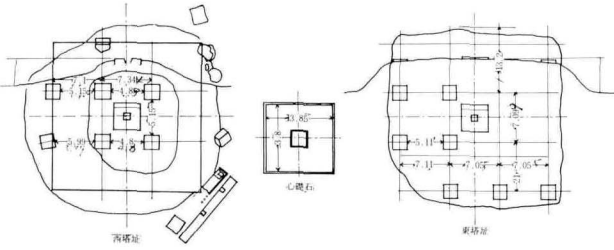


그림 2. 西天王寺塔址
(자료: 藤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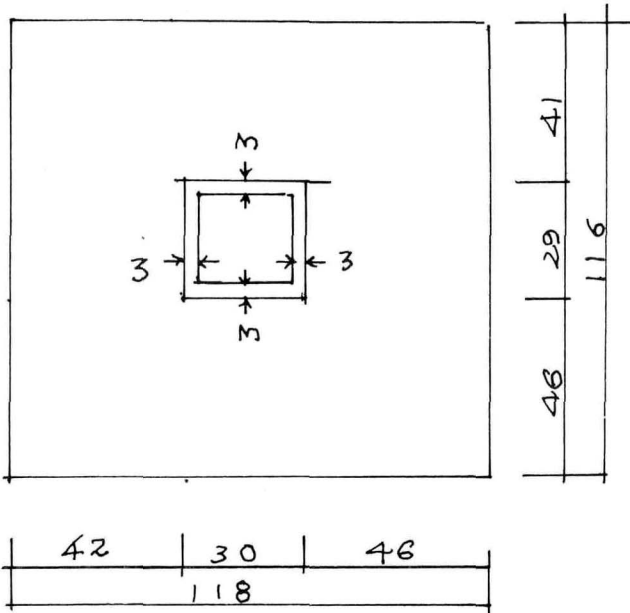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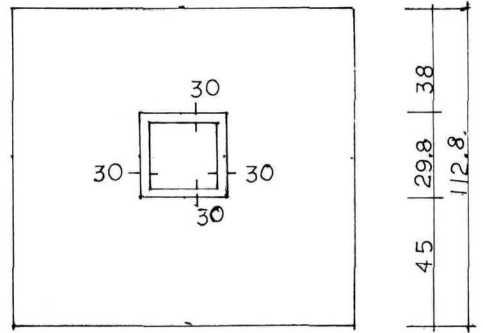


그림 6. 四天王寺址 西塔址心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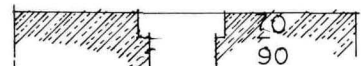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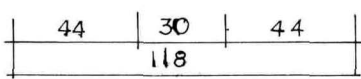


그림 4. 四天王寺址 東塔心礎石
단위: cm



그림 5



그림 7.



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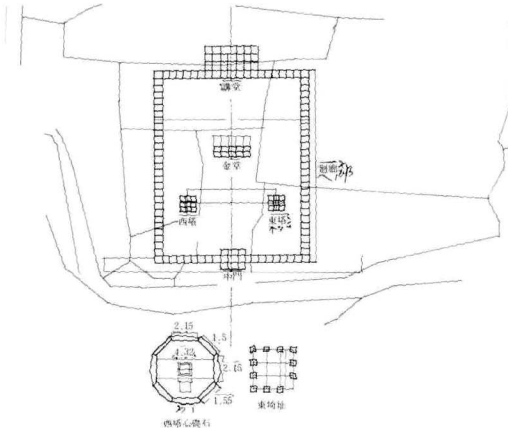


그림 9. 望德寺址
(자료: 藤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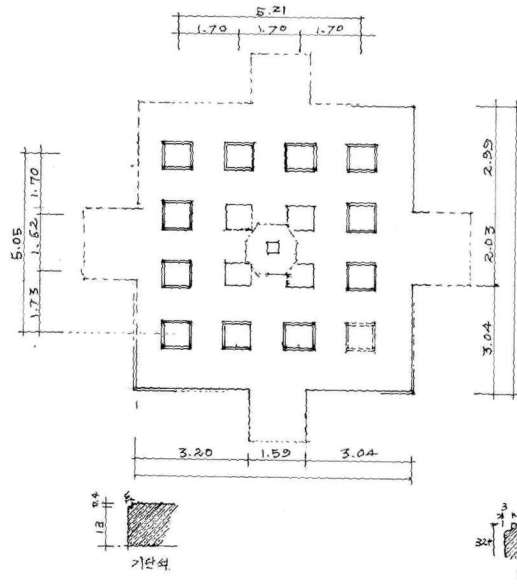


그림 10. 望德寺址 東塔址 1984. 2. 12 실측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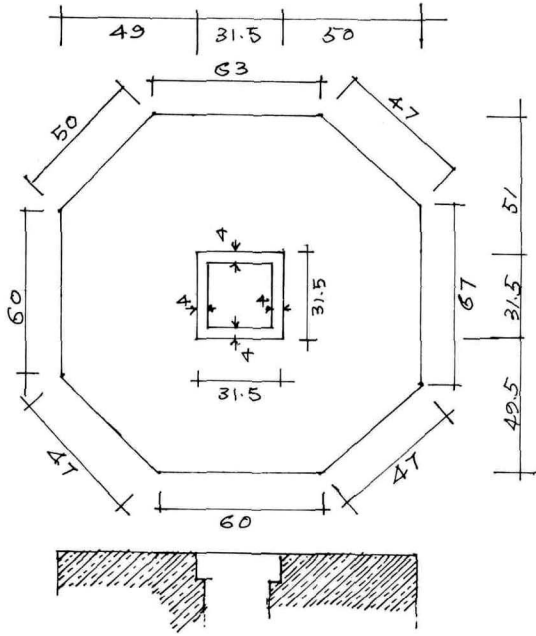


그림14. 望德寺址 西塔心礎石 1984. 2. 12. 실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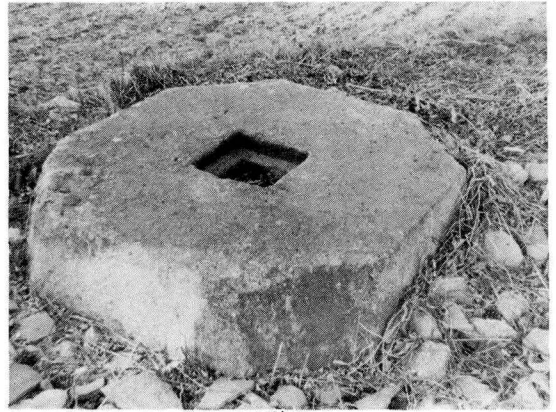


그림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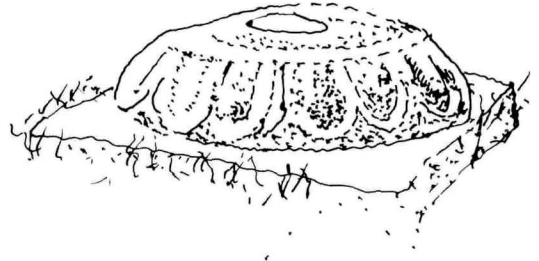


그림16. 普門寺 西塔心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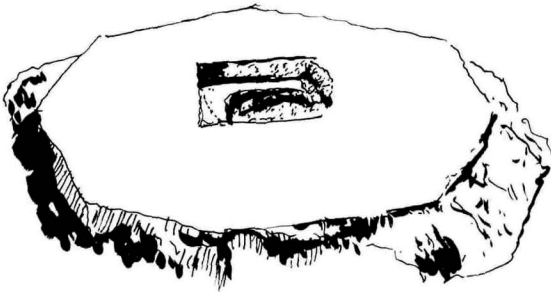


그림17. 心礎石
(자료: 朴日薰)



그림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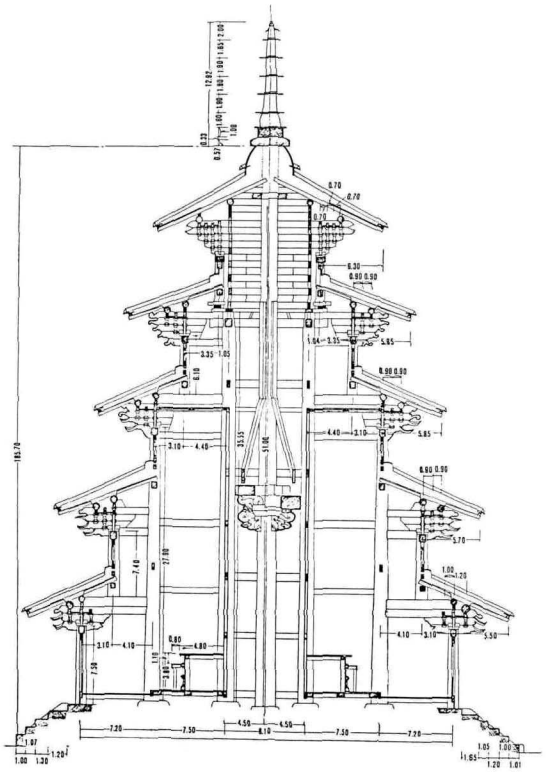


그림18. 法住寺 捌相殿 架構圖



그림20. 四天王寺址 出土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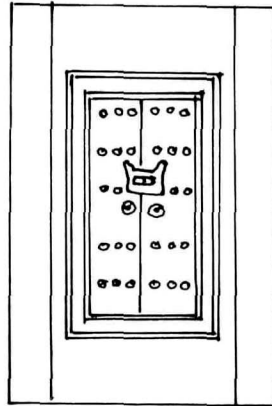


그림21. 聖住寺址 3층 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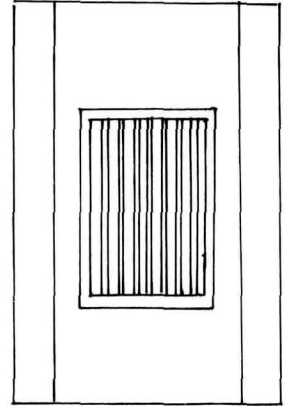


그림22. 高建寺址浮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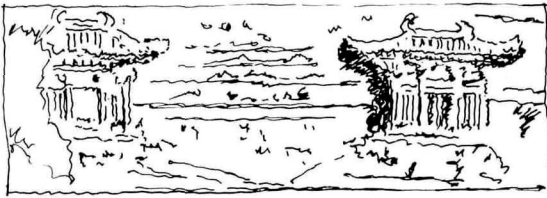


그림23. 壁塼(統一新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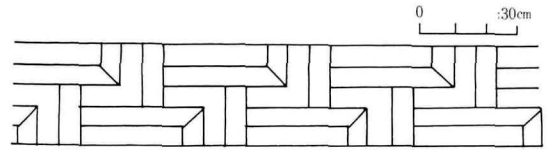


그림24. 안압지출토 난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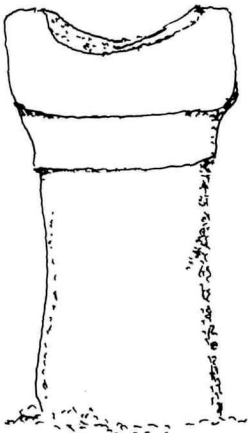


그림25. 통일신라시대 난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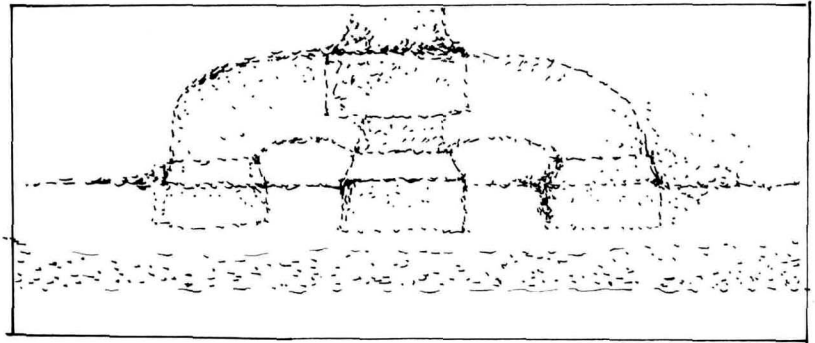


그림26. 통일신라시대 석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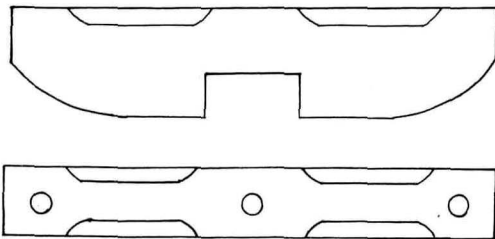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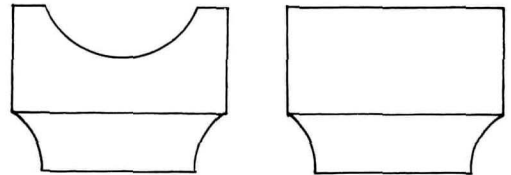


그림27. 첨차편
(안압지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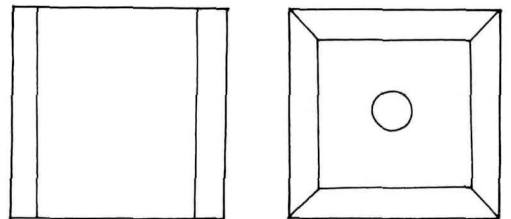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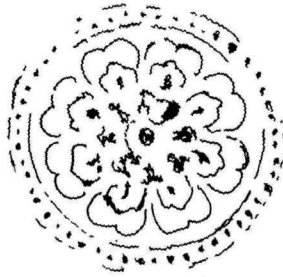


그림28. 소로편
(안압지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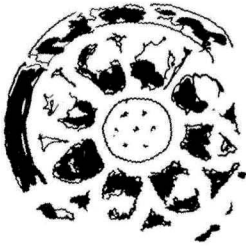
普門寺址
(林永周：p498. 그림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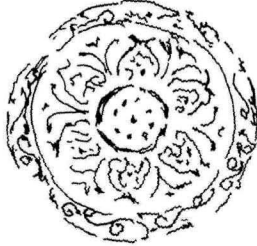
普門寺址 (林永周：p498. 그림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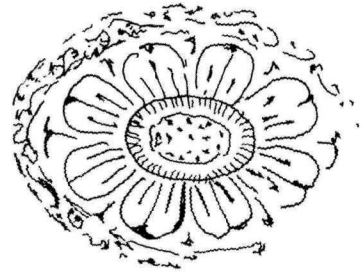
普門寺址 p500



西天王寺址



四天王寺址 p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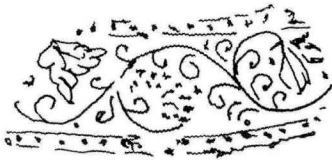


四天王寺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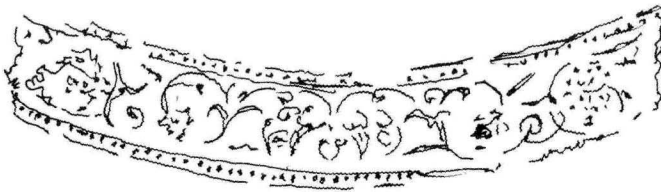
그림29. 수막새



암막새 四天王寺址



普門寺址



四天王寺址, 普門寺址

그림30. 암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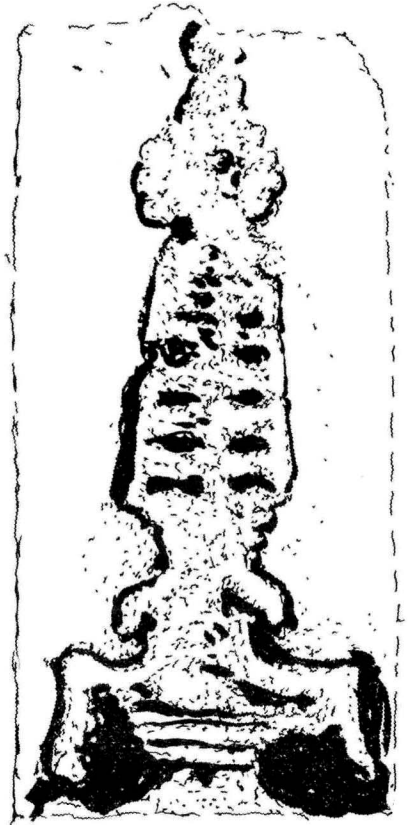


그림31. 伯栗寺 石造片

달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益山彌勒寺址 西石塔의 屋蓋石 끝에서 風鐸을 달았던 나비장흙(工)과 또 佛國寺出土의 토수기왜에서도 風鐸을 매달았다고 생각되는 흙이 있는것, 그리고 비록 高麗時代의 것이나, 風鐸들을 매단 月精寺八角九層石塔들을 볼때 확실시 되는 것이다.

四、結 語

지금까지 고찰한 바에 의하면, 統一新羅時代에 建立된 木造塔婆는 그 數가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 韓國塔婆의 주종을 이루는 石造塔婆나 기타 塔婆 등의 始源의 위치에 있는 중요한 것임을 알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소수의 木造塔婆를 마저 現存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관계로 그 樣式은 관계 유적과 문헌, 기타 동시대와 前後時代의 一般木造 建築의 고찰로 어느정도의 고찰은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이 되는 木造塔婆의 層數問題와 復原圖作成問題만 큼은 아직 미해결로 되어 있다.

統一新羅時代의 木造塔에 대한 復原圖를 만들려면 우선 各木塔址의 정확한 실측은 물론, 한질음 나아가 各寺址 全體에 대한 엄밀한 발굴조사 실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엄밀한 발굴조사 실측을 토대로 발굴시 출토되는 각종 유물과 관계 문헌과의 비교에서 비교적 정확한 복원도를 작성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렇다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확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조사 실측만으로 복원도를 작성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또 많은 오류를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II장에서와 같은 양식적인 복원 고찰만이 가능하고, 문제의 핵심이 되는 木造塔婆의 층수 추정문제는 藤島博士가 조사 실측하여 추정할 수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의 추정에 의하면, 四天王寺의 兩木造塔들은 모두 三層塔이었다고 생각된다.

또 그는 望德寺와 普門寺의 兩木造塔도 三層으로 추정하였었다.

그러나 四天王寺와 普門寺의 木塔들은 三層으로 추정함에 큰 오류가 없다 하였으나, 望德寺의 木塔에 있어서는 오류가 있을수 있다 하겠다. 그 이유는 三國史記 新羅本記 第九 景德王十四年條에 『：兩塔相對高十三層：』이라 한 뚜렷한 기록을 간과할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찌기 高裕燮先生께서 論한 바와같이 月城淨惠寺址 十三層石塔과 같은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以上的 考察로 統一新羅時代의 木造塔婆들은 비록 現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는 하나, 韓國塔婆建築史上 重要な 위치를 차지하며, 統一新羅時代의 木造建築樣式의 精髓를 모두 지닌 우수한 建築이었다고 결론지을수 있는 것이다.

[註]

- ① 藤島亥治郎, 『朝鮮建築史論』一九三〇.
- ② 鄭永鎬, 『三國時代의 佛敎建築』考古美術一五〇號, 一九八一.
- ③ 金正基, 『三國時代의 木造建築』考古美術一五〇號, 一九八一.
- ④ 高裕燮, 『韓國塔婆의 研究』(서운·同和藝術選書) 1975.
- ⑤ 高裕燮, 『고려』 89~90.
- ⑥ 朴日薰, 『慶州狼山西麓의 木塔址』「考古美術」六三, 六四號, 一九六五.
- ⑦ 金正基, 『고려』 31~32.
- ⑧ 姜友邦, 『四天王寺址出土塑造 四天王浮像復元の 考察』考古美術 一四三, 一四四號.
- ⑨ 申榮勳, 『木造樣式의 石塔材 新例』考古美術 卷五 권 六, 七號, 一九六四.
- ⑩ 金東賢, 『雁鳴池出土木造部材에 대하여, 張起仁先生華甲記念論文集』.
- ⑪ 黃壽永, 『新羅柱塔片』考古美術 第六卷 七號 一九六四, 東國大博物館刊 東國大學博物館圖錄.

참고 문헌

- 金東賢, 『雁鳴池出土木造部材에 대하여』 장기인 회갑기념논문집.
- 金正基, 『三國時代의 木造建築』考古美術 一五〇호, 一九八一.
- 高裕燮, 『韓國塔婆의 研究』同和藝術選書.
- 朴日薰, 『慶州狼山西麓의 木塔址』考古美術 六三, 六四호, 一九六五.
- 申榮勳, 『澈聖國師浮屠의 木造樣式』考古美術 三三〇號, 一九六三.
- 『木造樣式의 石塔材新例』考古美術 四八號, 一九六四.
- 姜友邦, 『四天王寺址出土塑造 四天王 浮像復元の 考察』考古美術 一四四, 一四四號.
- 鄭永鎬, 『三國時代의 佛敎建築』考古美術 一五〇, 一九八一.
- 姜弘燮, 『普西塔門寺 址心礎의 調査』考古美術 一〇〇號, 一九六八.
- 黃壽永, 『新羅柱塔片』考古美術 四八號, 一九六四.
- 藤島亥治郎, 『朝鮮建築史論』, 一九三〇.